

다니엘서 - 제118번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적 경고: 종말 사건들의 상징적 묘사

Jeff Pippenger

2024-03-05

예루살렘의 거리를 오르내리며 그 도시에 닥칠 재앙들을 선포하던 한 사람이 공포한 63년부터 70년에 이르는 7년간의 경고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3년 반, 이어 제자들의 사역에서 또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주어진 경고로 이미 예표되어 있었다. 이전의 글들에서는 예루살렘의 파괴가 십자가에서, 혹은 이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었음을 이미 지적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도시와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은 미루어졌다.

“또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겠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은 곧 자기들의 성읍과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영광은 꺾여 바람 앞의 티끌처럼 흩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그 위에 세웠더라면 자신들의 안전이 되었을 바로 그 반석이었다. 그것은 멸시받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배척당한 의였으며, 업신여김을 받은 자비였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섰고,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그들의 멸망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르도록 정하신 모든 것을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발견하였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속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내포되어 있었다. 갈바리에서 흘린 피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들을 파멸로 가라앉힌 무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릴 그 크고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그리스도께서 그때에는 복수하시는 산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거절된 사랑과 멸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멸망할 것이다.”

수많은 비유와 거듭된 경고를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할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지를 보여 주셨다. 이 말씀들에서 그분은 모든 시대에 그분을 구속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더럽혀진 성전, 불순종하는 아들, 불의한 농부들, 경멸하는 건축자들은 모든 죄인의 경험 속에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고한 파멸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증언하던 7년의 기간은 첫 번째 포위 때 1,260일씩 같은 길이의 두 기간으로 나뉘었다. 그 일곱 해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상징했고,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역의 일곱 해는 예루살렘 파괴의 시작을 상징했으며, 예수님은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신다. 그 일곱 해는 또한 1,260년씩 같은 길이의 두 기간으로 나뉜 북왕국을 향한 '일곱 때'로도 예표되었다.

현대 로마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문자적 예루살렘과 영적 예루살렘을 짓밟아 온 역사를 되풀이하고, 현대 로마가 서기 63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준 경고의

두 기간에 해당하는 두 역사를 되풀이하며, 또한 현대 로마가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각기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던 두 기간으로 나타난 역사를 되풀이할 때, 비록 말세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두 개의 분명히 구별되는 기간이 나타날 것이다.

그 두 기간 중 마지막 것은, 곧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 그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면 현대 로마가 신실한 자들에 대한 최종적 박해를 단행하는 상징적 42개월이다. 그 상징적 42개월은 두 기간 중 둘째이며, 현대 로마의 집행심판의 기간이다. 그 기간에 앞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이 있다.

실제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를 전했던 그 남자는 티투스의 포위전에서 죽었다. 그는 파괴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파괴에 앞선 포위전 동안에 죽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리스도인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7년 동안 한 남자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오르내리며 그 도성에 닥칠 화를 선포했다. 그는 밤낮으로 섬뜩한 애가를 외쳤다: '동쪽에서 나는 소리여! 서쪽에서 나는 소리여! 사방 네 바람에서 나는 소리여! 예루살렘과 성전을 거스르는 소리여! 신랑들과 신부들을 거스르는 소리여! 온 백성을 거스르는 소리여!' -Ibid. 이 기이한 인물은 투옥되고 채찍질을 당했으나 그의 입에서는 단 한 마디의 불평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모욕과 학대를 받아도 그는 오직 이렇게 대답했다: '화, 화가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화, 화가 그 주민들에게 있으리라!' 그가 예언했던 포위전에서 살해되기 전까지 그의 경고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The Great Controversy, 29, 30.

그 남자는 포위 중에 죽었지만, 최후의 멸망 때에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최후의 멸망은 은혜 기간의 종결과 일곱 마지막 재앙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 남자는 첫 번째 포위 때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메시지의 상징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도피했고, 첫 번째 3년 반 동안 그 남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 한 무리를 상징했으며, 두 번째 3년 반에는 그는 은혜 기간의 종결 전에 죽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다. 첫 번째 기간에는 그는 14만 4천을 가리키고, 두 번째 3년 반 기간에는 그는 그 기간 동안 죽는 큰 무리를 대표한다.

그 남자의 메시지는 역사가가 기록했고, 여섯 가지 음성으로 표현되었다. 마침내 그가 투옥되었을 때,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향한 '화, 화'였다. 처음 기록된 '음성'은 '동방에서 오는 음성'이었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화'였다. 그의 메시지의 처음과 마지막 요소는 이슬람을 나타내는 성경적 상징이었다. 성경에서 이슬람은 '동방'의 자손으로, '동풍'으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화'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것은, 땅의 왕들이 '슬프다, 슬프다 그 큰 성이여' 하고 세 번 외치는 때인 현대 바벨론의 종말을 반영한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세 구절에서 '슬프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8장 13절에서는 '화'로 번역되어 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여, 아직 나팔을 불지 아니한 세 천사의
그 남은 나팔 소리들로 말미암아!" 하더라. 요한계시록 8:13

그 남자의 "화, 화"라는 선포는 세 가지 화의 삼중 적용을 나타낸다. 이는 첫째 화의 요소들이 둘째 화의 요소들과 'line upon line'으로 결합되어 셋째 화의 요소들을

식별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열여덟째 장에서 땅의 왕들이 “슬프다, 슬프다”라고 한 세 가지 표현이 첫째와 둘째 화에 의해 확립된 셋째 화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 남자의 메시지의 시작과 끝은 셋째 화의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형화한다.

그의 메시지의 첫 표현은 '동방'에서 들려온 음성이었고, '동방'은 이슬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동방에서 올라오는 인치는 천사를 가리키는 표지이기도 하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 또 나는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한 천사를 보았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땅과 바다를 해하도록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내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십사만 사천 명이 인침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7:1-4.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이야기에서, 그가 바다를 바라보고 구름을 보았을 때 그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는 갈멜산이 지중해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에 이르러 그가 말하였다. “보라, 바다에서 사람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가 또 말하였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라. 네 병거를 준비하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 열왕기상 18:44.

엘리야는 지중해가 있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메시지가 분열의 메시지임을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러 왔노라. 이제부터는 한 집에 다섯이 나뉘어, 셋은 둘을, 둘은 셋을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하며, 어머니는 딸을 대적하고 딸은 어머니를 대적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덥겠다' 하니, 그대로 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51-56.

예루살렘을 향한 사자의 기별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지를 지닌다. 이는 시작과 끝이 셋째 화의 이슬람을 식별하고, 또한 '동방'의 음성으로 이슬람의 기별을 인침의 기별로 동시에 식별하기 때문이다. '서쪽'에서 오는 '둘째 음성'은 마지막 비인 늦은 비를 가리키며,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들을 말하고 있다. '서쪽'의 기별은 두 부류의 예배자를 낳는 늦은 비 기별의 상징이다. 그 한 부류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은 비 기별을 알아보지 못한다.

사자의 기별의 다음 요소는 “네 바람”의 음성으로, 이는 인침의 메시지가 셋째 화로 표상된 이슬람의 분노한 말에 관한 메시지이다. 다음 요소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가 지목하는, 지나쳐 버림을 받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드러낸다. 그들은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성전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신의 유산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스러운 역사 전반에 걸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우리가 곧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자들로 묘사된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겨냥한 메시지는 라오디게아의 메시지이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되지 않는 것을 놀랄 필요는 없다. 남녀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제쳐 두고 있다. 분노와 탐욕이 승세를 잡고 있다. 영혼의 성전이 악으로 가득하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의 비뚤어진 길을 따른다. 그들은 구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책망과 경고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하며, 마침내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영적 분별력이 인간의 생각으로 혼미해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 섬김에 부족함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은 우리가”라고 하며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쳐 두고 자기 상상의 빛을 따른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2년 4월 8일.

그 사자는 이어 신랑들과 신부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높이 외쳤는데, 이는 ‘한 줄 한 줄’이라는 방법론의 상징이었다. 마지막 날들의 예언의 흐름은 노아의 날의 예언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같으며, 멸망의 홍수가 그들의 세속적 야망과 계획을 휩쓸어 넘치려 하던 바로 그때에도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세속적인 추구와 쾌락, 돈벌이에 몰두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들은 영원한 것들에 눈이 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휩쓸어 가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오심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37-39.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도, 천국도, 내세도 없는 듯 이익을 좇아 앞만 보고 달리며 이기적 향락에 빠져 있다.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의 경고가 사람들의 악함을 놀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 전해졌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세상일에 몰두한 데서 깨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실재를 자각하게 하여 주님의 식탁에의 초청에 귀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6. 경고와 자비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힐 것이다. 그것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을 강권하여 들어오게 하라. 내 집이 채워지게 하라.’” 그리스도의 실물교훈, 228.

경고의 마지막 요소는 이전 본문에서 강조된다. ‘모든 백성’을 거슬러 올려 퍼지는 음성으로 표현된 그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이며, 구원을 받기 위해 복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밝힌다.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 두려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우리의 죄였다는 현실에 근거한다.

그의 7년간의 사역 동안 예루살렘에 보낸 그 사자의 모든 측면은 영원한 복음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주후 27년부터 34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증하신 7년 동안 제시된 바로 그 동일한 복음이었다. 또한 그것은 말세의 마지막 두 기간에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이며, 늦은 비의 기별에 고유한 것으로, 곧 셋째

화의 이슬람의 기별이다. 그것은 일백사십사천의 인침,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 가라지의 라오디게아 상태, 그리고 늦은 비의 방법론의 상징인 예언의 삼중 적용을 밝혀 주는데, 그 방법론은 '선에 선을 더함'이다.

그 역사 속의 칠 년의 메시지는 예언적으로 '보복의 날들'이라는 틀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보복의 날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역이 가장 처음 언급될 때부터 그 일부였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와 사역은 마지막 날들에 14만 4천 명에 의해 반복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보복의 날들'이라는 예언적 배경 속에서 규정할 것이다. 그의 말씀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보복'에는 두 가지 성경적 유형이 있는데, 곧 그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보복과 그의 원수들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그분께 반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 주며, 그 징벌에는 성소와 군대가 문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짓밟히는 일이 포함된다. 성소와 군대의 짓밟힘이라는 상징 속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원수 갚으심의 상징도 함께 나타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징벌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를 토하여 내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정표에서 현대 바벨론에 대한 그분의 원수 갚으심도 시작된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속한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에 이어, 두로의 창녀와 그녀가 타고 군림하는 짐승에 대한 집행 심판이 뒤따르는데, 이것이 모든 이상이 성취되는 말세의 예언적 역사이다. 모든 이상은 그 두 예언적 기간에 적용되어야 하니, 늦은 비의 방법론은 예언의 선 위에 예언의 선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두 역사들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그 시점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표적'을 지적하셨다.

첫 번째 기간은 2001년 9월 11일, 14만 4천 명의 인침이 시작될 때 시작되었다. 그 이정표에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지목하신 "징조"가 표시되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제,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등불을 든 사람과 함께 설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에 분명한 소리를 주신 그곳에 우리의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나팔에 분명한 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졌고 의심 가운데 있었으며, 교회들은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는 힘 있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새장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1, 2]."

자, 그렇다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아볼 처지에 있지 않다면, 그 메시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티끌만큼도 없음에도, 우리와 의견이 맞는 누군가에게서 우리에게 올 때에는 우리는 가장 어두운 기만도 곧장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43 참조]. 바로 그것이 미니애폴리스 회의 이후 줄곧 여기에서 벌어져 온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메시지가 당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일 리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담화, 제1권, 142쪽.